

# 바레인과 비겨도 올림픽 나가지만...

우즈베키스탄전서 졸전을 펼친 박성화호(號)가 천만다행으로 그나마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한국 올림픽축구대표팀은 17일(이하 한국시간) 2008 베이징올림픽 남자축구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B조 5차전 우즈베키스탄과 원정 경기에서 후반 한 두 차례 골 기회를 제외하고는 이렇다할 공격을 퍼져 못한 채 득점없이 비겼다. 이로써 승점 1을 보태는데 그친 한국은 3승2무(승점 11)가 됐지만 2위 바레인이 세 시간 늦게 열린 시리아와 홈 경기에서 1-1로 비긴 덕분에 살얼음 조 선 두를 유지했다. 한국을 텃밭에서 추격하고 있는 바레인은 3승1무1패(승점 10)가 됐다.

성화호는 바레인에 앞선 상황에서 최종전 맞대결을 맞이하게 돼 최소한 비기기만 해도 6회 연속 올림픽 본선에 오를 수 있다. 그러나 밤심은 금물이다. 바레인은 한국과 원정 경기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기 때문에 공격적이고 거칠게 나올 것이 뻔하다. 오일달리로 귀화시킨 아프리카 출신 선수들이 포함된 바레인의 공격력은 결코 알볼 수 없는 수준이다. 박성화호는 안방에서 패배만 당하지 않으면 본선행에 성공하지만 지난 달 시리아전과 이날 우즈베키스탄전에서 보여준 경기력으로는 안심을 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남아있다.

## 골가뭄·수비 불안 박성화호 우즈베키스탄 졸전

## 시리아 덕택 불안한 선두... 21일 최종전

결국 본선행 티켓의 향방은 오는 21일 오후 8시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열리는 한국과 바레인의 최종전 한 판 승부로 결정나게 됐다. 한국은 비기기만 해도 본선행 결승 티켓을 확보하게 된다. 베이징올림픽 본선 티켓은 아시아에 세 장 주어지고 현재 A-C조로 나누어 치러지는 최종예선 각 조 1위팀에만 돌아간다. 만약 이날 바레인이 시리아를 잡았다면 박성화호로서는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 바레인과 홈 경기를 치러야 할 뻔했다. 바레인에 뒤진 채로 맞붙는다면 반드시 승리해야만 본선 진출권을 따낼 수 있기 때문이다. 바레인은 박성화호가 지난 9월 원정 경기에서 강민수(전남)의 헤딩 결승골로 1-0 승리를 거둔 적이 있지만 불리한 조건에서 맞붙는다면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대다. 지난 7월 아시안컵 조별리그에서 국가대표팀도 바레인에 역전패를 당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미 본선 진출이 좌절된 시리아가 박성화호에 효자 노릇을 했다. 박

올림픽호는 지난달 17일 시리아와 원정경기에서 0-0으로 비긴 데 이어 두 번 연속 득점없는 무승부로 골 가뭄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우즈베키스탄전에서도 전세기를 타고 140명의 붉은 악마들이 원정 응원을 펼쳤지만 태극전사들은 제대로 힘을 쓰지 못했다. 공격은 예리한 맛이 없었고 전략은 단조로웠다. 오히려 둔탁한 우즈베키스탄 공격에 휘둘리기 일수였다. 더 이상 잔디 밟만 할 수 없는 집단 무기력증에 가까웠다. 중원에서 상대를 압도하지 못해 끌려다녔고 벤치의 용병술도 전혀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여기에 한국은 신광훈, 신영록이 경고 누적으로 바레인에 뛰지 못하는 부담도 안게 됐다. 바레인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이유다. 한편 A조 호주는 이라크를 2-0으로 꺾고 선두가 됐고, C조 일본도 제일 교포 3세 이츠타이가 헤딩으로 두 골을 뽑아낸 데 힘입어 베트남을 4-0으로 대파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이스라엘에 막힌 '히딩크 마법'

### 유럽축구, 러시아 1대 2패

거스 히딩크 감독의 마법이 복병 이스라엘 앞에서 제동이 걸렸다. 히딩크 감독이 이끄는 러시아 축구대표팀은 18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텔아비브 라마트 간 경기장에서 열린 2008년 유럽축구 선수권대회(유로2008) 예선 E조 조별리그 11차전 이스라엘과 원정 경기에서 1-2로 패

했다. 6승3무2패(승점 21)로 승점을 보태지 못한 러시아는 크로아티아(승점 26), 잉글랜드(승점 23)에 이어 조 3위에 머물러 2위까지 주어지는 본선 티켓을 놓칠 가능성이 커졌다. 러시아는 22일 안도라와 원정 경기에서 반드시 이기고 잉글랜드가 크로아티아에 저야만 본선행을 확정할 수 있다. 유로2008 본선 탈락 위기에 놓였던 '축구종가' 잉글랜드는 이스라엘이 러시아를 잡아준 덕분에 자력으로 본선에 오를 수 있게 됐다. 잉글랜드는 22일 런던 웬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크로아티아와 최종전에서 최소한 비기기만 해도 본선에 진출한다. 잉글랜드가 크로아티아와 비기고 러시아가 안도라를 누르면 잉글랜드, 러시아의 승점이 같아지지만 잉글랜드가 러시아와 상대전적 골득실에서 앞선다. 크로아티아는 마케도니아에 0-2로 졌지만 본선 진출을 확정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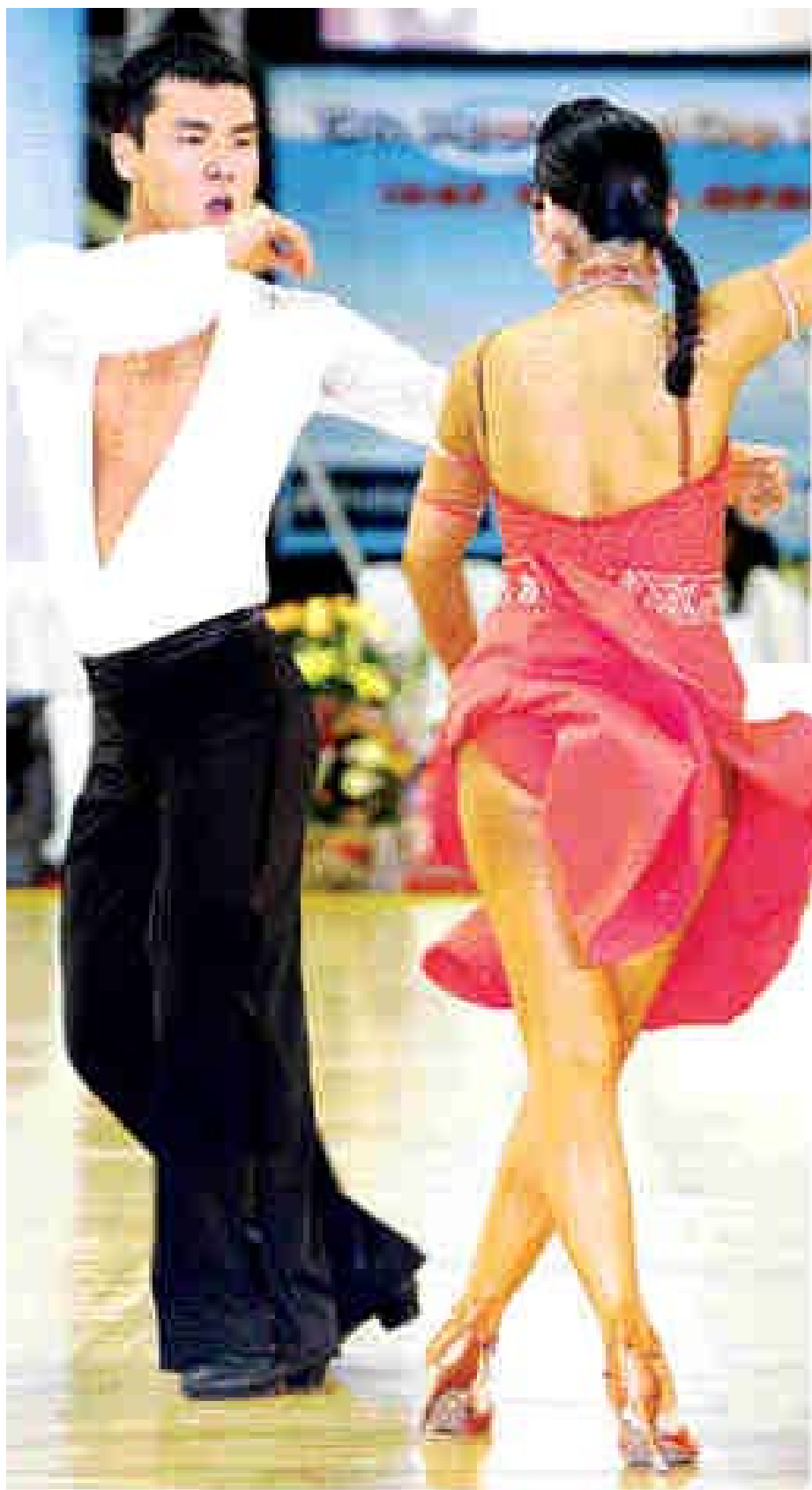
골프 권도 화양정거래 전문기관
록펠러 회원권
골프장 시애틀 3,500, 록펠러 6,200
남양주 4,300, 파인힐스 12,200
송주 8,200, 함평 7,400
상당분리 (062)351-0095

# “이젠 400m 세계 신기록도 가능”

### 경영월드컵 6차 자유형 400m 3분 36초 68로 우승 쇼트코스 역대 3위...해켓의 세계 기록에 2초 뒤져

‘마린보이’ 박태환(18·경기고)의 전담 코치인 박석기 전 경영대표 감독이 세계 신기록 작성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박석기 감독은 18일 새벽(이하 한국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수영연맹(FINA) 2007 경영월드컵 쇼트코스 6차 시리즈 자유형 400m에서 박태환이 우승한 뒤 인터뷰에서 “이제는 세계기록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다”고 말했다. 박태환은 이날 3분36초68를 기록하며 그랜드 해켓(호주)이 2002년 7월 호주 시드니에서 작성한 3분34초58의 세계기록에 2초 차이까지 다가갔다. 쇼트코스 기록으로는 역대 3위다. 종전 25m짜리 쇼트코스 수영장에서 박태환보다 빠르게 헤엄친 선수는 장거리 최강 그랜드 해켓과 은퇴한 ‘인간어뢰’ 이안 소프(이상 호주) 밖에 없었다. 소프는 2003년 1월 스웨덴 스톡홀름 경영월드컵에서 해켓의 세계기록에 0.05초 뒤진 3분34초63으로 우승했고, 경영월드컵 신기록으로 남아있다.

특히 박태환의 이번 기록은 자신이 지난 2일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경영월드컵 3차 시리즈에서 낸 3분39초99의 기록보다 3초 이상을 단축한 것이기 때문에 2초 이상 단축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박석기 감독의 생각이다. 박 감독은 레이스 작전에 대해 “3분37초를 목표 기록으로 주고 이것만 생각하라고 지시했다. 또 독일의 파울 비더만이 쫓아올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하고 가를 확실하게 꺾어줘야 한다고 했다. 예상대로 잘 들어맞았다”고 설명했다. 박석기 감독은 박태환 전담팀을 이끌고 지난달 말 출국해 호주 시드니(2~3일)와 스웨덴 스톡홀름(13~15일)을 거쳐 세번째 경영월드컵 시리즈에 참가했다. 박 감독은 “대회에 출전하면서 지구력을 70% 정도까지는 끌어올린 것 같다. 기록을 줄일 수 있었던 건 더 큰 성과”라며 “올 겨울 해외전지훈련에서는 전문 지구력 훈련으로 모자란 부분을 보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열정의 포즈로

18일 오후 올림픽 펜싱경기장에서 열린 '제10회 슈퍼코리아컵 댄스 스포츠 선수권대회'에서 참가선수들이 화려한 댄스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 최경주 아쉬운 준우승

## UBS홍콩오픈 최종 히메네스에 1타 뒤져

‘탱크’ 최경주(37·나이키골프)가 유럽프로골프 투어 겸 아시아 투어 UBS홍콩오픈 마지막날 불꽃 추격전을 펼쳤으나 우승컵을 차지하지 못했다. 최경주는 18일 홍콩 북부 관링의 홍콩골프장(파70·6천703야드)에서 열린 대회 최종 4라운드에서 선두에 5타 뒤진 채 출발해 3언더파 67타를 치며 역전의 기회를 노렸지만 합계 14언더파 266타로 공동 2위에 머물렀다. 지난 5년간 이 대회 출전에서 2005년 준우승을 한 것이 최고 성적이었다던 최경주는 선두와 5타나 벌어진 힘든 상황에서도 전력을 다하는 선전을 펼쳤다. 전날 선두였던 로베르트 카를손(스웨덴)은 같은 챔피언즈에서 경기한 미겔 앙헬 히메네스(스페인)에 우승컵을 내줬다. 히메네스는 16번홀(파4) 버디로 카를손과 공동 선두를 이룬 뒤 18번홀(파4)에서 극적인 역전에 성공, 15언더파 265타로 우승했다. 카를

손은 마지막 홀에서 더블보기를 범하는 바람에 14언더파 266타로 최경주, 톱치아 자이디(태국)와 공동 2위에 머물렀다. 전반에 버디 4개에 보기 2개를 곁들이며 2타를 줄인 최경주는 10번홀(파4) 버디 뒤 13번홀(파5)에서 이글을 잡아내며 선두권에 있던 카를손과 미겔 앙헬 히메네스(스페인)를 위협했다. 사흘 연속 60대 타수를 기록했던 카를손의 상승세는 확실히 한풀 꺾였다. 전반에 1타도 줄이지 못한 카를손은 13번홀 버디로 한숨 풀리는 듯 했지만 15번홀(파4)에서 보기를 범했다. 최경주는 16번홀(파4)에서 1타를 잃어 카를손과 1타차를 좁히지 못하자 18번홀 티샷에서 드라이버를 꺼내들며 승부수를 띄웠다. 하지만 티샷은 왼쪽 숲으로 떨어졌고 어렵게 그린 가장자리로 볼을 보냈지만 칩샷마저 그리운 넘어 벙커에 빠지면서 최경주는 보기로 돌아오며 우승권에서 멀어졌다. 위장수(35·테일러메이드)는 7언더파 273타로 공동 20위, 강욱순(41·삼성전지)은 6언더파 274타로 공동 26위에 올랐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상금왕’ 김경태 21위... 허석호 ‘톱 10’

### 日골프 던롭피닉스 최종

한국프로골프 상금왕 김경태(21·신한은행)가 일본프로골프투어(JGTO) 진출을 앞두고 치른 일본부대 전초전에서 중위권에 그쳤다. 김경태는 18일 미야자키 피닉스골프장(파70·6천919야드)에서 열린 일본프로골프투어 던롭피닉스토너먼트 최종 라운드에서 3오버파 73타로 부진, 4라운드 합계 1오버파 281타로 공동 21위에 머물렀다. 첫날 5언더파 65타를 뿜어내며 공동 선두에 올라 기대를 부풀렸던 김경태는 이후 사흘 연속 타수를 잃어 목표포 샴샨 ‘톱 10’ 진입에 실패하고 말았다. 1라운드 때는 울퉁한 가장 샷 감각이 좋았

다는 김경태는 “2라운드부터 이유없이 샷이 흔들렸다”면서 프로 데뷔 이후 처음 나신 일본프로골프투어 대회에서 상위권 입상을 해내지 못한 데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레도 212만엔의 적지않은 상금을 챙긴 김경태는 “28일부터 열린 일본프로골프 웰리앙스투에 대비해 날씨와 코스에 대한 적응이 목표였다”면서 “아쉽기는 하지만 웰리앙스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일본프로골프투어에서 6승을 올린 관록의 허석호(34)는 이븐파 70타로 잘 버텨 공동 10위(3언더파 277타)를 차지해 한국 선수 가운데 가장 좋은 성적을 올렸다. 우승컵은 최종 라운드에서 1언더파 69타를 친 이안 폴터(잉글랜드)에게 돌아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김미현·김초롱·이정연 ‘8강 샷’

### LPGA투어 ADT챔피언십

한국 선수 3명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최종전인 ADT챔피언십 8강에 나가기 됐다. 18일(한국시간)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의 트럼프 인터내셔널골프장(파72·6천538야드)에서 열린 3라운드에서 이정연(28)이 2언더파 70타를 쳐 16명 가운데 공동 5위로 마지막 4라운드에 올랐고 김미현(30·

KTF)과 김초롱(23)은 1언더파 71타를 기록해 공동 7위로 8강행 막차를 탔다. 이번 대회는 출전선수 32명 중 3라운드에 16명, 4라운드에 8명만 진출하게 한 뒤 3, 4라운드는 해당 라운드 성적으로만 순위를 정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열리기 때문에 살아남은 8명은 지금까지 성적과 무관하게 마지막 날 18홀 결과에 따라 우승 상금 100만 달러의 주인공으로 결정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